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2. 10. 27.(목)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철도국     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안재혁 (044-201-3964) |
|       |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박정호 (044-201-3972) |
| 보도일시  |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정부는 빠르고 안전한 GTX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조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('22.10.27. e대 한경제) >

◆ GTX-B 노선 재정 이어 민자구간도 급제동

- 오는 2024년 상반기 동시 착공 사실상 물 건너가
-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철도 품질과 이용객 안전성에 문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GTX 유찰 등 난제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GTX 조기 착공 및 개통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최근 3회 유찰로 사업지연 우려가 제기된 GTX-B노선은 '24년 착공 및 '30년 개통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사업방식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, 사업 방식이 확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.

□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품질 및 안전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 우려가 없도록 현재 보다 엄격한 시공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, 향후 모든 GTX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리·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